

## 코로나 이후 학교 상습 결석 급증



▲ 스쿨버스 탑승을 위해 학생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shutterstock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학교 결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가 41개 주(워싱턴DC 포함)에서 취합한 데이터 분석 결과, 공립학교 학생 26%가 지난 학년도(2022~2023학년도)에 상습적(만성적) 결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전 15%보다 11% 포인트 불어난 수치다. 미국 교육계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전체 학기 출석 일수의 10% 이상 결석하거나, 매달 이틀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상습 결석으로 규정한다.

이런 현상은 빈곤 지역 학교에서 더 심화됐지만, 부유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등 학군, 소득, 인종 등의 특성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곤 지역 사회에서 결석률은 팬데믹 이전 19%에서 지난 학년도에 32%까지 치솟았으며, 부유한 지역의 학군의 경우도 이전 10%에서 2022~2023학년도에 1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케이티 로센밤 듀크대 아동·가족정책센터 교수(심리학자)는 "학교와의 관계는 선택사항이 됐다"며 "현재 학교에서는 충돌(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 또는 도피(결석)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인 토지 소유 제한법' 제정 나서는 주정부들

미국에서 갈수록 많은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올해 20여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작년에 15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총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런 법은 보통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



▲ 일리노이주의 한 농지에 판매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의 토지 소유도 제한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 가결되지는 않았다.

폴리티코는 2021년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농지의 3.1%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

협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로 각각 0.97%, 0.37%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뉴욕시, 뉴욕마라톤 주최 측에 "다리 통행료 내라" 갈등

뉴욕시 교통당국이 세계 최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마라톤의 주최 측에 다리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최근 뉴욕마라톤 주관 단체인 뉴욕로드러너스에 뉴욕시 베라자노-내로우스대교의 차량 통제에 따른 통행료 손실 보전 명목으로 75만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뉴욕마라톤은 맨해튼 남서부의 섬인 스탠 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브루클린과 퀸스, 브롱크스, 맨해튼 등 5개 자치구를 거쳐 센트럴파크에서 끝나는 코스로 운영된다. 스탠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잇는 현수교인 베라자노-내로우스대교는 뉴욕마라톤 코스 중에서도 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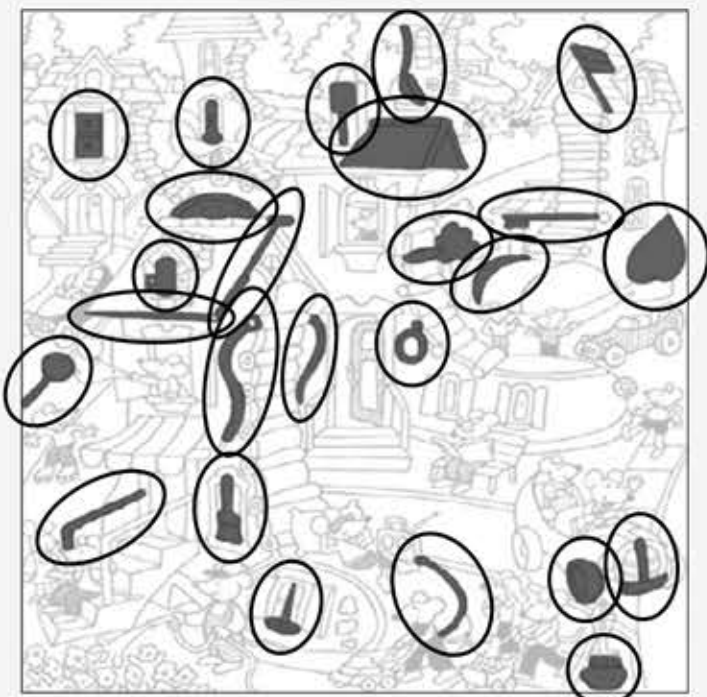
▲ 2022년 11월 열린 뉴욕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베라자노-내로우스 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라이트로 구간으로 꼽힌다.

MTA는 뉴욕마라톤 기간 베라자노-내로우스대교의 차량 통행료를 못 받게 되는 만큼 주최 측이 손실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5만달러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상·하부 복층 도로 중 1개 층만 대회를 위해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뉴욕마라톤 참가자들은 1988년 이래 이 다리의 도로 2개 층을 모두 이용해왔다.

뉴욕로드러너 측은 MTA가 과도한 비용 부담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MTA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리 통제에 따른 인건비 지원금 외에 통행료 손실 보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뉴욕로드러너는 지난 2021년부터 베라자노-내로우스대교 차량 통제에 따른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왔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회사 설립
급여 관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사업 운영 전략
예산/재무 계획	IRS, FTB, CDTFA, EDD	재무/회계 상담
각종 세금 관련	세무 회계 감사	사업 가치 산정
	해외자산 FBAR-Report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